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204회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 주요내용

주 제 : 능동적 핵(核)억제 전략
발제자 : 권혁철 합동참모대학 교수
일 시 : 2015년 11월 5일 오전 7시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요약 >

☞ 11월 5일 204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는 권혁철 합동참모대학 교수를 연사로 초청해 능동적 핵 억제 전략이라는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현재 북한의 우라늄 핵무기 생산 능력이 약 100kg 정도로 연간 6~7개 정도 핵무기를 증강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과 생산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 때문에 전망치의 차이가 있다.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정책과 전략을 짜기 어려울 때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 핵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과 같이 우리의 안전한 인식이 북한의 핵 증강을 억제하지 못한 요인이다. 핵 위협 억제를 위해 정부는 맞춤형 핵 안보전략 수립이나 한미 공동 핵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하며, 군의 조치로는 북한의 핵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전력과 작전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른 군사훈련을 시작해야한다.

■ 기존 억제 전략이 어떻게 북한의 기습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재의 능동적 억제 전략은 우리의 기습공격과 더불어 북한의 공격임박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능동적 억제 전략의 근본적인 목적은 북한의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및 사용의지를 무력화하여 궁극적으로는 핵을 동반한 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 능동적 핵 억제 전략에도 한계가 있다. 이동표적 및 엄폐표적의 탐지 및 식별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제타격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제 1격에 대한 반격으로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그 부분을 감수하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선제 공격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북한이 '선제의 선제' 공격으로 먼저 공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북한 핵 공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억제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선 우리나라

의 군사적 선제능력과 의지를 높이는 것이다.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금지선을 만들어 제시하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되어야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 다음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수준을 높여야 한다. 북한이 먼저 핵 공격을 한다면 미국이 우리 대신 핵 공격을 통해 보복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증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전술 핵 저장소 설치를 검토해야한다. 미국 본토에 있는 전술 핵을 우리나라에 운반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저장소에서 보관한다면 북한이 느낄 위협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북한 핵 위협 억제효과는 클 것이다.

■ 선제능력 못지않게 핵 방어능력도 중요하다. Kill chain과 K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모두 완벽하게 갖추 수 없기 때문에 두 방어시스템의 조화가 필요하다.

■ 조기 반격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현재 전략기동군단이 하나 있지만 군단 하나를 더 추가해야한다. 미군을 기다리게 되면 많은 시간 손실이 발생한다. 시급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대가 필요하다.

■ 북한 극단치 생산 목표시 2040년 세계 5위권 핵 국가 전망 : 연간 8~10개의 핵무기 제조 능력 보유

- 최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여러 전망이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핵이 많이 증강되어 향후 5년 이내 100개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5년 이내 15~20개가 증강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연간 우라늄 생산 능력은 약 100kg 정도로 6~7개 정도 핵무기를 증강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미 당국의 공식적인 전망치 발표는 없다. 전망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현재 보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생산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정책과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북한 핵능력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았다. 중국 전문가들은 2020년이 되면 북한이 8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 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 전문가들은 그보다 낮게 전망했다. 전반적으로 북한이 연간 8~1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위의 그래프는 북한이 핵 공장을 가동했을 때 최소치, 중간치, 최대치, 극단치의 생산목표량을 추정한 후 생산 목표량과 목표연도에 따라 만든 것이다. 북한이 최소치의 생산 목표량으로 생산한다면 2020년 이후 북한은 중국의 1/3 수준인 80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수준에 해당한다. 그리고 북한 내부의 목표가 극단치의 생산 목표량을 가졌을 때 2040년 이후 핵무기는 250기로 중국과 대등하며 이는 세계 5위의 핵 국가가 될 수준이다.

- 북한의 핵무기는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물질의 폭발력 증가와 정확성이 증가된 소형화에 성공했다면 그 다음은 핵무기의 다종화와 투발수단의 다양화를 연구할 것이다. 투발 수단의 다양화로 단거리 미사일에서부터 장거리 미사일까지, 미사일 외에 이동 발사대, 잠수함 발사 등 투발 수단을 가진다면 문제는 심각해진

2020년 후 북한 핵 능력 추정

(미·중 전문가 전망치인 년 8~10개 제조 능력 기준)

구분	생산 목표량	목표 연도		
최소치	80기(중국의 1/3) ※ 이스라엘 수준	2020년 이후	Russia	7,500
중간치	130기(중국의 1/3) ※ 現 인도, 파키스탄 수준	2025년 이후	United States	7,200
최대치	180기(중국의 2/3) ※ 향후 파키스탄 수준	2030년 이후	France	300
			China	260
			United Kingdom	215
			Israel	80
극단치	250기(중국과 대등) ※ 세계 5위의 핵 국가	2040년 이후	Pakistan	120-130
			India	110-120

※ 북한의 핵 생산 목표 구분과 목표량은 발표자가 주관적으로 예상하여 판단한 것임

다. 만약 북한이 자신들이 설정한 양적, 질적 목표를 달성한다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선제공격을 할 때 많은 양과 높은 질의 핵탄두를 가진다는 것은 제 1격 능력의 향상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고, 우리의 반격 능력도 감소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핵탄두에 의한 북한의 제 2격 능력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동적 핵 억제전략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핵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만약 북한이 경제 문제도 성공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다면 주도권이 북한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다.

■ 북핵 증강 저지 실패는 전략 부실과 의지 부족 때문

: 북핵 초기대응은 민감한 사안, 한미가 미리 협의해야

- 북한의 핵 증강 상태에 대한 우리의 반성과 함께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1991년 공중 투하 핵무기 철수에 대한 반대와 찬성 논의가 있었다. 반대 입장은 우리가 전술 핵무기를 철수해도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고, 찬성 입장은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게 되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결국 북한이 핵 개발을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91년 당시는 냉전이 해체되던 시대로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평화 분위기에 동참해야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충분한 토의 없이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철수가 이루어졌다. 1990년도 초 연변 핵 시설에 폭격은 실제 하지 않더라도 폭격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 북한의 핵 증강 저지에 실패한 이유는 우리의 전략 부실과 의지 부족 때문이다. 전략 부실로는 북한이 핵실험 등 특별한 움직임이 있을 때만 반짝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임기응변식 반응이 문제다. 또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만 해석 한 점이다. 북핵은 국제적인 문제지만 우리는 당사국으로서의 자각이 부족하다. 6자회담에서 우리나라는 1/6의 역할만 하려고 하며, 전략적 인내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전략적 인내'가 틀린 말이 아니지만 더불어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 증강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 북한 핵 증강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6자회담을 재개하거나 고강도 제재 등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보류시킨 핵 개발 저지 옵션을 다시 꺼내 전략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핵 억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는 정부와 군의 조치로 나눌 수 있다. 정부의 조치는 맞춤형 핵 안보전략 수립이나 청와대 조직 보강 및 한미 공동 핵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핵 문제에 대한 초기대응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과 미리 협조가 필요하다. 군의 조치로는 핵 대비가 가능한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해야하며, 북한 핵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전력은 핵 위협을 전제로 군사 훈련을 시작해야한다.

■ 이동업체 표적 탐지 제한 등 능동적 핵 억제 전략에도 한계 있어

: 선제적 자위권에는 동맹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도...美와 협의 필요

- 능동적 핵 억제라는 용어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해결하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억제전략을 말한다. 이 전략이 처음 나오게 된 배경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때문이다. 과거에는 북한으로부터 공격당할 때까지 인내하며, 오직 보복에 의해서만 억제를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내할 수 있는 최대 수준까지는 인내하지만, 그 이후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상황을 우리 주도로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다. 기존 억제 전략이 어떻게 북한의 기습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재의 억제 전략은 우리의 기습공격과 더불어 북한의 공격임박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 능동적 억제 전략의 근본적인 목적은 북한의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및 사용의지를 무력화하여 궁극적으로는 핵을 동반한 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만약 억제가 실패했을 때는 우리 군 및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핵 위협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평시에는 우리가 전략의 주체지만, 전시에는 한미 동맹 방위체제에 의해 한미국가통수기구의 통제를 받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수행한다. 전략의 수단은 우리 군의 전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다. 우리도 공격, 방어능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미국의 전력을 합친 연합을 통해 능동적 억제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능동적 핵 억제에는 자위권과 선제적 자위권이 있다. 유엔헌장 51조에 있는 자위권은 형법상 정당방위권과 같은 용어로 정당한 경우 면책 사유가 된다. 하지만 자위권은 무력 공격이 발생한 이후라는 사후적 측면이 있다. 선제적 자위권은 위협이 크고, 다른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수단이 없을 때 불가피하게 먼저 공격하는 것이다. 군사행동으로 본다면 자위권에는 방어, 반격이 있고, 선제적 자위권에는 방어, 반격을 포함한 자위적 선제 공격 및 선제 타격이 추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공격할 시 자위권을 행사해야하며, 추가로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가미한 것이다. 선제적 자위권 행사는 우리나라만 자위권을 행사하는 개별 자위권과 미국이 포함된 동맹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 능동적 억제 전략의 구체적인 기본 개념은 평시에는 북한 핵·WMD의 위협을 모든 수

단과 방법을 통해 억제하는 것으로, 북한이 금지선(red line)을 넘을 시 공격조치 못하고 소멸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통해 억제하는 것이다. 금지선을 넘어 전쟁 도발 임박 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의 핵우산 전력으로 보복하여 북한을 격퇴하고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둬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 도발이 임박했을 때 실제 도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정권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를 통해 북한의 전쟁도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능동적 핵 억제 전략의 핵심이다. 과거 억제 전략은 보복 억제에 중점을 뒀다면 능동적 억제 전략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 그 자체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억제효과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억제 실패 시에는 기습이 전제가 되는 북한의 공격보다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면 해결될 것이다.

- 하지만 능동적 핵 억제 전략에도 한계가 있다. 이동표적 및 엄폐표적의 탐지 및 식별 제약으로 선제타격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제 1격에 대한 반격으로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그 부분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선제공격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북한이 '선제의 선제' 공격으로 먼저 공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선제공격을 했을 때 국민의 지지도 변화로 환호에서 공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능동적 핵 억제 전략은 불안정한 전략이기 때문에 실패 시 대처방안을 가져야 한다.

- 이러한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 능력인 제 1격을 강화하고, 북한이 반격했을 때의 방어능력을 갖춰야 한다. 선제타격 결심에 있어서도 한미 간 평상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관계자들이 모여 여러 훈련과 연습을 통해 발생하는 마찰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선제 공격에 대한 결심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임박성이 아닌 북한의 핵 공격 그 자체이다.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 할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과 상황을 판단하여 선제공격을 하면 된다.

■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금지선(Red Line) 만들어 제시해야

: 북한 핵 증강 지속시 전술 핵 저장소 설치 검토해야

- 북한 핵 공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억제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 전략을 조화시켜야 한다. 능동적 억제 전략은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전히 보복적 억제에 주안을 두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선제적 군사 행동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공격위협에 대비하는 준비를 한미 연합으로 하되 우리의 자체 공격체제로 선제 타격을 하고 미국은 우리의 선제 타격을 지원한다면 우리의 고유한 자위권 행사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부담을 줄 일수 있을 것이다. 핵 반격 단계에서는 미국이 핵을 사용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핵 보복을 감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도의 공격과 미국이 지원하는 역할로 도와주는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군사적 선제능력과 의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금지선을 만들어 제시하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정부

가 바뀌더라도 지속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 다음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수준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핵 개발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이라는 뜻이다. 북한이 먼저 핵 공격을 한다면 미국이 우리 대신 핵 공격을 통해 보복하겠다는 대북한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한미 간에는 한층 더 높은 신뢰를 쌓아야 한다. 현재 미국은 핵 공격보다는 재래식 무기로 보복하겠다는 뜻이 강하다. 하지만 이는 과거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핵무기를 사용함에 있어 빈틈이 없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 핵 보복에 최적화된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증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전술 핵 저장소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평상시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유사시에는 배치해야 한다. 미국의 전술 핵 무기는 미국 본토와 나토 지역에 있다. 미국 본토에 있는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운반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저장소에서 보관한다면 북한이 느낄 위협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북한 핵 위협 억제효과는 클 것이다.

- 보복, 선제공격도 중요하지만 핵 방어능력도 중요하다. Kill chain과 K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모두 완벽하게 갖추 수 없기 때문에 두 방어시스템의 조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무기가 100개 있다면 Kill chain이 막을 부분과 KMD로 막을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핵 피해를 대비한 방호시설을 종합 진단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강해야 한다. 방어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공격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그리고 조기 반격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현재 전략기동군단이 하나 있지만 군단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한다. 선제적 군사행위는 신속한 공격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자체 능력으로 선제공격을 해야 하지만 우리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군이 들어와야 반격을 할 수 있다. 이는 충분히 전력을 갖춘 상태에서 반격하겠다는 지침 때문이다. 하지만 미군을 기다리게 되면 많은 시간 손실이 발생한다. 시급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대가 필요하다.

204회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북한 핵 개발 초기 대응에 대한 당시 군사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소비에트연방에서 보유하던 핵무기는 정확히 수거된 것인지? 일본이나 독일에 핵물질이 실제로 없는 것인지, 앞으로 보유할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 책임자 문책은 군사책임자보다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반대해 영변핵시설 폭격을 안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서가 ‘군사적인 옵션은 하면 안 된다’, ‘큰 일 난다’는 분위기였다. 사실 국민의 의지가 폭격해라, 그러나 이면에서 결정적인 것은 자제하자라고 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최근에 목함지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정권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90년대 당시 북한 정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북한은 절대로 핵 시설 건설을 안했을 것이다.

과거 소련에 소속되어있던 국가들은 현재 핵이 없는 상태다. 우크라이나 등 과거 소련

소속이었던 나라는 러시아에 핵을 반납한 상태로 현재 러시아만 갖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핵 보유 능력은 있지만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은 2020년, 2030년이 되면 한국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듯이 모든 나라는 핵 보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한다. 독일의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핵우산을 이용하고 있다. 독일은 핵 기지에 미국 핵탄두를 갖고 있다.

질문2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때 결단할지, 핵무기 80기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결단할지 지금 정해야 한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강전략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만약에 미국이 빠져 나간다면 핵 비보유국가인 우리가 북한에 능동적 핵억제전략이 가능한지?

답변 4차 핵실험을 할 때가 적기라고 생각한다. 제가 말했던 모든 옵션을 꺼내야한다 할 때라는 것을 군사적으로 핵실험 현장을 공격하는 것으로 연상했다면 잘못 이해한 것이다. 전략은 꼭 행동하는 것만 전략적 수단이 아니다. 위협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다. 제가 말 한 옵션은 예를 들어 핵을 재배치하자는 전술, 사드 배치,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는데 우리도 끝까지 이런 것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통해 미국과 중국을 움직이게 하고, 북한을 움직여서 해결하자는 것이지 물리적 파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자강전략은 중요하다. 여기서 한미연합 전력으로 이야기 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는 정보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의 자체적인 군사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해서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비핵국가가 핵 국가를 상대할 수 있는냐는 질문은, 사실 우리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핵을 가진 나라가 비핵국을 공격하면 바로 보복해주겠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기조다. 우리도 그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비핵국가가 핵 국가를 대상으로 단독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핵을 개발하면, 모든 국가들이 핵을 개발해야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미동맹 관계에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미만큼 군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질문3 국민의 합심 문제가 중요하다. 국내 종북좌파의 활동을 어떻게 차단해야 하는지? 유사시 북한 핵심지도부에 대한 제거 전략의 준비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클라우제비츠가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정부, 군대, 국민)가 중요하다. 국민이 열정을 갖고, 정부는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국민의 열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국민들이 유언비어나 특정 세력에 의해 정당한 선제적 자위권 행위를 침묵행위로 부각시키는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상시에 커뮤니케이션과 대비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 북한지도부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표적은 제 1번 표적으로 되어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